

일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문장

김한식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교수

1. 번역의 역사와 번역학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글로써 옮기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번역이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번역의 역사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통역과 다르게 ‘글’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번역의 역사가 문자의 역사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최초의 번역물은 종교 서적인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 의학 서적이라고 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서번역은 히브리어(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긴 70인 역본이며, 70인의 역자들은 히브리어 성서를 문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석을 가하는 방식의 의역을 시도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초의 번역서는 조선시대 1395년(태조4) 이두(吏讀)로 번역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이와 같이 번역의 역사는 약 2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학문으로서의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의 역사는 신학이나 의학, 철학, 문학 등에 비해 짧은 것이 사실이며, 현대적 의미의 번역학의 역사는 수십 년에 불과하다. 번역학이 신생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

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세부 주제로 ‘번역투(translationese)’ 또한 번역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2. ‘번역투’란?

그러면 ‘번역투’란 무엇인지, 여러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를 살펴보자.

- 두 언어 사이의 전위의 흔적으로 번역자가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번역 작업 과정 자체에서 생기는 현상.(Nida 1959, 정영옥 2010: 8에서 재인용)
- 일반적으로 번역투는 번역물 목적어에 나타난 원작 외국어의 영향으로서 원래 목적어로 된 창작물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쓴 것을 옮겼다는 흔적이 번역물 전반에 나타날 때 쉽게 감지되는 것들이다. (류현주 2009: 8)
- 번역투라는 단어는 ‘번역’과 ‘투’로 나뉘는데, ‘투’라는 말이 ‘어떤 말이나 글이 일정하게 버릇처럼 굳어진 방식’을 뜻하므로 ‘번역투’란 결국 어떤 글에 원본이 아닌 번역이라는 흔적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텍스트상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우 2007: 61~62)

이상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핵심어 가운데 하나는 ‘흔적’이라는 용어이다. 우리말이 도착어라고 한다면, 애초에 우리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외국어로 쓰인 것을 우리말로 옮겼음을 나타내는 ‘흔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들 정의에서 사용된 ‘흔적’이라는 표현은 문맥상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잠시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래미상 혹은 아카데미상과 같은 외국의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하는 첫 마디. “신사 숙녀 여러분!” 이 말은 잠시만 생각해 보면 영어의 “Ladies and gentlemen”을 우리말로 옮겼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번역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번역투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신사/숙녀’가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도 정착되었고, 또한 외국의 어떤 시상식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임을 감안한다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은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정의들은 되도록 간략하게 표현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번역투’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번역투’에 대한 다른 정의를 더 살펴보겠다.

- 원문 구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오경순 2010: 27)
- 외국어를 국어로 옮길 때 국어에는 없는 외국어 문체를 그대로 옮겨서 국어에서는 어색하고 투박하여 매끄럽지 않은 말과 글의 문체. (김지혜 2006: 15)
- TL이 SL¹⁾의 특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TL이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할 수 없고 우습기까지 할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런 현상은 지나친 직역이나 TL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 (Schäffner 2000, 조상은 2004: 41에서 재인용)

1) SL(Source Language): 출발언어, TL(Target Language): 도착언어의 약자. SL을 기점언어 혹은 원천언어, TL을 목표언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일본어로 서술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본어가 출발언어, 한국어가 도착언어가 된다.

이들 정의에서는 ‘어색한’, ‘부자연스러운’, ‘매끄럽지 않은’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번역투’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류현주 2009: 9), 많은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번역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다루기로 한다.

3. 번역투와 가독성

어떤 글에 대한 읽기 쉬운 정도를 가리켜 ‘가독성(可讀性)’, 영어로는 ‘readability’라 한다. ‘독이성(讀易性)’ 혹은 ‘이독성(易讀性)’ 등 다소 다른 표현도 있으나, 개념은 같은 것이다. 미국 등 영어권 국가를 비롯해 서구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가독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서는 가독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식들도 다양하게 개발되었다.²⁾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미국에서는 가독성 측정 공식들이 여러 방면에서 실용화되고 있다. 특히 학교 교과서를 공식에 의해 평가하여 해당 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 수준에 맞게 집필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각종 도서 출판물에도 가독성 점수(readability score)가 표시되어 몇 학년 정도의 독자에게 적합한지를 알려 주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 그 밖에도 신문기사, 정부 간행물, 행정 규정, 기업 보고서, 각종 계약서 등 많은 종류의 글의 난이도를 가독성 측정 공식으로 평가함으

2) 한 예로 그 가운데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Flesch공식(1948)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E. = 206.835 - 0.846wl - 1.015sl$$

R.E.: Reading Ease, 가독성 점수

wl: word length, 단어 길이(100단어 당 음절 수)

sl: sentence length, 문장 길이(문장 당 평균 단어 수)(김기중 1993:33)

로써 쉬운 글쓰기 운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최천택 1995: 312).

가독성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인 가운데, 대부분의 언어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것은 어휘의 난이도(혹은 생경함), 문장의 길이, 문장 구조의 복잡성이 있다. 해당 글에 사용되는 어휘가 난해하거나 생소하고, 문장이 장황하고, 2중, 3중으로 수식하는 구절이 복잡하게 얽혀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그 글의 가독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쉬운 단어를 사용해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은 읽기 편한, 가독성이 높은 글이 된다(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번역된 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문보다 어렵고 생소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번역하게 된다면 가독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말하는 ‘번역투’는 어휘, 문장의 길이, 문장 구조의 복잡성 등 여러 층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독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4. 언어 간섭과 일한 번역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어순(語順, word order)이 분류 기준이 될 때가 있다. Dryer(2011a)는 세계의 1,377개 언어의 어순을 조사하여 분류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SOV(주어 + 목적어 + 서술어)형이 가장 많아 565개, 이어서 SVO(주어 + 서술어 + 목적어)형이 488개, 그 다음은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VSO형이 95개, VOS형이 25개, OVS형이 11개, OSV형이 4개, 기타 189개였다. 특별히 정해진 어순이 없거나 어순의 교체가 자유로워 어떤 어순형에 속하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언어는 기타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비교적 접할 기회가 많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이 SVO 구문을 취하기 때문에 SVO형이 가장 많을 것이라 예

상했다면 다소 의외의 결과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SVO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35.3%인 반면, SOV형은 41.0%로 SVO형보다 5.7%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공히 SOV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SOV형 언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합계는 SVO형 쪽이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에 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큰 공통점은 한국어와 일본어 공히 한자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각각 고유의 문자, 즉 한글과 가나(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사용하지만, 그와 함께 한자라고 하는 같은 문자를 공유한다는 것은(최근 일본에서는 약자체를 많이 사용해 모양이 다소 다른 경우도 있으나) 큰 공통점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는 문자로서의 한자는 함께 사용하지만, 단어로서의 한자어가 일치하는 경우는 일본어에 비해 많지 않다.

<표 1> 한자어의 한·중·일 표현 비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공항: 空港	空港	机场
식사: 食事	食事	吃飯/用餐
방송: 放送	放送	广播
군대: 軍隊	軍隊	軍隊/軍旅
고속도로: 高速道路	高速道路	高速公路

물론 한자의 발음은 다르고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한중에 비해 한일 간에 같은 한자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같은 데다 한자를 공유하고, 한자를 사용한 단어(한자어)까지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국어와 일

본어는 '비슷한' 언어라고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하나 비유를 해 보겠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보자. 기후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나 알래스카로 여행을 간다면 그곳 날씨가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다른 옷을 준비해 간다. 기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옷차림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 나라인 일본으로 여행 갈 때는 기후가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지는 않겠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일본어의 간섭을 받아 부자연스러운 우리말, 즉 '번역투'가 되어 버리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화제를 바꾸어, 우리나라 출판업계의 동향을 잠시 소개하겠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2011년도 전체 발행 종수(4만 4,036종)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1만 1,648종)로 2010년도의 26.7%(1만 771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출판된 도서 가운데 약 4권 중 1권이 번역서라는 것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번역서 중에서는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도서에 편중된 경향이 두드러져, 일본(4,552종), 미국(3,396종), 영국(1,098종), 독일(560종), 프랑스(523종), 중국(434종), 동유럽(185종), 이탈리아(130종), 북중미(119종)의 도서 순으로 번역됐다. 같은 언어권인 미국과 영국을 합쳐도 일본 도서의 번역에 못 미칠 정도로 일본 도서 번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구조가 서로 비슷하고 국내에서 번역 출판되고 있는 일본 도서가 다른 나라의 도서보다 많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일한 번역사(번역 작가)의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언어의 번역투보다 일본어의 번역투

가 일반 독자에게 보다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일한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그러면 이어서 실제 일한 번역문에 나타난 번역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1. 문장 부호

번역의 문제는 문자,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절, 구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장, 문장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얼핏 번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장 부호 또한 번역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가시나무새》의 영한 번역시 문장부호 처리 연구: Colon, Dash, Semicolon을 중심으로(정상배 2011)”, “영어 특유의 문장부호 개념 및 용법과 번역전략과의 연계(조우정 2011)”, “번역에서의 문장부호 사용에 대하여(최기천 1989)” 등 다수의 학술 논문이나 《문장부호의 번역학》(김도훈 2011)이라는 제목의 전문 서적이 출판된 것을 보아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장 부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 비교적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마침표(일본어의 ‘구점(句點)’) 및 쉼표(일본어의 ‘독점(讀點)’)의 사용 양상에 대해, 비교적 필자(혹은 작자) 개인의 문체가 드러나지 않는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다. 그 결과를 먼저 <표 2>에 제시하겠다.

<표 2> 한일 양국 신문의 분야별 구두점 사용 양상(김한식 2010:72)

	정치		경제		사회		3분야 합계/평균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문자 수	19,892	17,106	19,971	15,629	20,431	15,143	60,294	47,878
마침표/구점 수	336	351	340	329	328	334	1,004	1,014
쉼표/독점 수	102	540	124	462	139	507	365	1,509
문장당 쉼표/독점 수	0.30	1.54	0.36	1.40	0.42	1.52	0.36	1.49
구두점 수	438	891	464	790	467	842	1,369	2,523
구두점 간 문자 수	45.4	19.2	43.0	19.8	43.7	18.0	44.1	19.0
마침표/구점 간 문자 수	59.2	48.7	58.7	47.5	62.3	45.3	60.1	47.2

한국 신문의 문장당 쉼표 수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3분야 가운데 사회면이 비교적 많아 0.42개, 정치면이 가장 적어 0.3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두점 간 문자 수는 사회면보다 경제면이 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면의 마침표 간 문자 수(문장 길이)가 사회면보다 적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어는 원칙적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에 미치는 구두점의 영향이 한국어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정치, 경제, 사회 3분야 간의 문장당 독점 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경제면에서 그 수치가 1.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로 인하여 구두점 간 문자 수는 경제면이 19.8자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정치면 19.2자, 사회면 18.0자의 순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구두점 간 문자 수란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구절의 길이라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것이 짧을수록 가독성이 높아 읽기 편한 문장이 된다.

한일 간 대조를 하면, 한국 신문 전체의 문장 당 쉼표 수는 0.36개로, 평균적으로 3문장에 하나 정도의 비율로 쉼표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

본은 이에 비해 4배가 넘는 1.49개에 이른다. 따라서 구두점 간 문자 수는 당연히 일본이 적어 19.0자, 한국은 그 2.3배에 해당하는 44.1자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한국어 신문 기사에서의 쉼표의 사용 빈도보다 일본어의 독점의 사용 빈도가 4.14배로 훨씬 높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어 글 속의 마침표와 일본어 글 속의 구점은 각 문장의 끝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거의 용법상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쉼표와 독점은 그 용법이 비슷할 것 같으면 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쉼표에 관한 새 한글 맞춤법의 설명을 보면,

-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의 절 사이
 -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 도치된 문장
 -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
 - 숫자를 나열할 때(남태현 1999: 102)
- (그 이하는 생략)

등등 15가지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어 문장에서 독점 역시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국어의 쉼표와 크게 다르게 다음과 같은 용법들이 추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주제를 나타내는 ‘는’, ‘도’ 등의 뒤에 사용한다.(主題を示す「は」「も」などの後に用いる。)
- 문장 첫머리에 있는 접속사나 부사 뒤에 사용한다.(文の初めにあ
る接續詞や副詞の後に用いる。)(國立國語研究所 1980: 42)

즉, 한국어의 쉼표보다 일본어의 読点이 더 폭넓게 쓰인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한국어 문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

“저는, 작년 가을부터 올 봄에 걸쳐서, 친구와 함께,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와 같이 쉼표가 지나치게 많은 문장이 되어 버려, 가독성이 낮은 번역투 문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어색하게 보일 것이다.

이 밖에 일본어 문장에서 직접 인용하는 경우 등에 많이 쓰는 부호「」를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남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문자 부분이나 표현에 관한 번역 이외에 문장 전체를 밑에서 받쳐 주고 있는 문장 부호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면서 번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5.2. 시사 용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표현으로 뉴스 보도 등에 사용되는 시사 용어가 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시사 용어의 번역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5.2.1. ‘재테크’, ‘환경 영향 평가’

1980년대 중반 무렵 일본 언론에서 ‘財テク(자이테쿠:재테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재무(財務)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약어로, 원래 일본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본업 이외에 잉여 자금이나 저리의 조달 자금을 주식, 채권, 토지 등에 투자하여 자금 운용을 다양화, 효율화하기 위한 방법. 개인이 행하는 경우도 해당(<http://dic.yahoo.co.jp> 《大

辭泉》사전의 풀이를 필자가 번역)’이라고 되어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재테크’라는 단어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한일 통·번역사들 사이에서는 ‘재산증식법(기술)’, ‘재산운용(기)술’ 등등의 번역어를 두고 함께 고민한 적도 있다. 결국 한국 언론에서도 ‘재테크’라고 표현하기 시작해 몇 년 후에는 별 저항감 없이 우리말 속에 정착되었으나, 이 단어가 정착되기 전에는 번역투 표현으로 비쳐졌던 시기가 있었다.

이제는 이 단어가 부적절한 번역어라든가 번역투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는 없어 보인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 ‘재산증식법(기술)’ 혹은 다른 표현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고, 또는 ‘재테크’로 충분하다(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전자의 입장에 선다면 ‘재테크’ 역시 번역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후자의 입장에 선다면 현대 생활의 한 측면을 반영해 우리말 표현도 그에 맞추어 다양화되었다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다른 사례도 있다. ‘環境アセスメント’ 즉 ‘환경어세스먼트트’라는 용어이다.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는 것(<http://dic.yahoo.co.jp> 《大辭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환경어세스먼트트’와 같이 [한자어 + 외래어] 식의 표현도 쓰이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대부분 ‘환경 영향 평가’라는 표현으로 보도하고 있어, 후자 쪽으로 통일이 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래서인지 ‘환경어세스먼트트’와 ‘환경 영향 평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후자 쪽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재테크’와 ‘환경 영향 평가’는 결과적으로 다른 풀의 표현으로 번역되었는데, 어느 한 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시사 용어 본래의 외국어(일본어) 표현이 무엇인지, 그 어감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는지, 주

된 용도가 무엇인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등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5.2.2. ‘함바’, ‘필로폰’, ‘워크맨’ 등

2011년 한국 언론에서 소위 ‘함바 게이트’, ‘함바 비리’ 사건이 빈번히 보도된 적이 있다. 최근까지 ‘함바’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부 언론도 있다. 필자의 직업은 일본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이지만, 처음 이 말을 접했을 때 설마 일본어 ‘飯場(はん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일본에서 ‘飯場(はんば)’는 보도 용어로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어이기 때문이다.

원래 의미는 “광산 노동자나 건축 현장 노무자를 위한 급식 및 숙박 시설, 건설 공사장의 휴게소 혹은 식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됨.”인데, “청결감이 결여된 표현이므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http://ja.wikipedia.org/wiki>).”라는 이유로 일본 언론에서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심지어 ‘함바 제도’에 대한 풀이는 “노동자를 강제로 함바에 수용하여 토목, 건설 등 공사에 종사시킨 전근대적인 노무 관리 제도, 임금 착취, 감금, 폭력적 제재 등이 행해졌다(<http://dic.search.yahoo.co.jp>).”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 일본 언론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한국의 언론이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건설 현장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것으로 짐작되지만, 적어도 언론에서만큼은 ‘(건설)현장 식당’과 같이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어야만 했다.

지금도 가끔 사건 보도에 쓰이는 말로 ‘필로폰’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원래 대일본 스미토모 제약(大日本住友製藥)이라는 제약 회사가 판매한 상품명이다. 이제는 각성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Philoap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일본

언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라면 각성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메스암페타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워크맨’ 또한 일본 소니사가 개발한 휴대용 음악 재생기의 상품명이다. ‘휴대용 CD플레이어’나 ‘휴대용 음악 재생기’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맞다.

본래 상품명이었던 고유 명사의 의미 영역이 확대되어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사례는 이 밖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상품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언론이 갖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판단 하에 적절하게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5.3. 한자어

앞서 ‘4. 언어 간섭과 일한 번역’에서 한국어와 일본어 공히 한자를 사용하며, 같은 표현(같은 한자의 조합에 의한 단어)도 많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아무리 두 언어에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많고, 같은 한자의 조합에 의한 단어가 공통되게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한자어가 의미하는 바와 실제 사용 양상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상당히 빈도가 높아 두 언어에서 공히 기본적인 단어라 할 수 있는 ‘학교:學校(がっこう)’라는 단어도 상당히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똑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대해서도 ‘~~學校’라 표현하며, 고등학교는 보통 ‘高校’라고 한다. 또한 대학교에 대해서는 ‘~~大學’이라 하고 ‘校’자를 붙이지는 않는다.

어떤 사건 보도에서 사용하는 ‘실종(자)’이라는 표현도 같은 한자를 쓰는 ‘失踪’이라는 단어가 일본어에 있기는 하지만, 사건 보도를 하는 문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行方不明(者)’이라 표현한다. 일본어를 번역한 것은 아니겠지만, 언론사의 일본 특파원 보도에 간혹

‘행방불명(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일본어에 의한 간접의 결과일 것이다.

일본어의 ‘生鮮’은 ‘생선’ 이외에 고기나 야채 등까지 포함하여 ‘신선한(신선함을 요하는) 식품’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일본어의 ‘愛人’은 ‘불륜 사이에 있는 애인’을 뜻한다.

소위 동형이의(同形異意) 한자어의 사례는 무수히 많아 모두 열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형이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한자어가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한 번역 시에는 번역투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5.3.1. ‘이지메’, ‘히키코모리’

1980년대부터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지메’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언론에서도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시차가 있기는 했으나, 거의 같은 성격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 처음 이 문제를 다룰 때 마땅한 우리말 표현이 없어 한국 언론에서도 ‘이지메’라는 말을 그냥 사용한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집단)따돌림’, 혹은 ‘(집단)괴롭힘’과 같은 표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서의 ‘이지메’는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단)따돌림’은 어감상 ‘육체적 고통’을 가한다는 의미가 다소 약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어떤 현상을 한 단어로 완벽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시사 용어로서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언론 보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지메’나 ‘왕따’보다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이 훨씬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그 이후에 나타난 ‘히키코모리’ 현상에 대한 우리말 표현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일본 사전의 풀이는 “장기간에 걸쳐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일”이라 되어 있다. 풀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어의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는 단어 그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말을 우리의 고유어나 한자어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한 번역어로 ‘은둔형외톨이’, ‘폐쇄은둔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일본어의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에 비해(혹은 일본어의 어감을 떠나 최근 사회 문제로서의 ‘히키코모리’ 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부정적인 의미, 이 경우는 문제의 심각성이 약하게 들린다. 또한 ‘은둔’이란 말은 보통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세상을 멀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며,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멋’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생각은, 만약 우리의 고유어로 표현한다면, ‘틀박이’(이 말이 ‘히키코모리’를 대신할 후보로 오르기도 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찾기마당 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refineG_view.jsp 참조)를 추천하고 싶고,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외출 기피증’을 추천하고자 한다.

6. 맺는말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현상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소개될 때 반드시 번역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국제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번역의 절대적인 양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번역 초기에 번역투였던 단어도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말로 정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착되기 전에 그 번역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본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한 구절을 소개하겠다.

서른일곱 살이던 그때, 나는 보잉 747기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거대한 비행기는 두터운 비구름을 뚫고 내려와, 함부르크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었고, 비옷을 걸친 정비공들, 민둥민둥한 공항 빌딩 위에 나부끼는 깃발, BMW의 광고판 등 이런저런 것들이 플랑드르파의 음울한 그림의 배경처럼 보였다.

《상실의 시대》(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유유정 옮김)의 시작 부분이다.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으며, 매끄럽게 번역된 문장이라 생각한다.

어떤 작품의 번역 전반이나 특정 용어의 번역어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을 가하는 것은 좋다. 그것을 통해 보다 발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번역 문화가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김기중(1993), 《리더빌리티 -읽기의 이론과 실제-》, 일진사.
- 김도훈(2011), 《문장부호의 번역학 -영어 한국어 문장부호 비교와 영어 문장부호의 번역 전략》, 한국문화사.
- 김지혜(2006), 《번역투의 개념 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한식(2003), 《한일 통역과 번역》, 한국문화사.
- 김한식(2010), 《가독성의 요인별 표현 분석을 통한 번역전략 연구 -한일 기사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태현(1999), 《실무자를 위한 새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와 교정의 실제》, 연암출판사.
- 류현주(2009), 번역투와 번역자투, 《번역학연구》 제10권 제2호, 7~22, 한국번역학회.
- 정영옥(2010), 《번역투와 번역품질 제고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천택(1995), Readability: Theory and Application, 《한신논문집》 12, 311~347, 한신대학교출판부.
- 國立國語研究所(1980), 《日本語教育指導參考書7 中・上級の教授法》, 大藏省印刷局.

참고 누리집

- 국립국어원 찾기마당 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refineG_view.jsp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대한출판문화협회 <http://www.kpa21.or.kr/> 에서 2011년도 출판통계
야후재팬 일본어사전 《大辭泉》 <http://dic.yahoo.co.jp>
- 일본어판 Wikipedia <http://ja.wikipedia.org/wiki>